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26

요즘 이것 저것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애굽 땅에서 태어나 기묘하게도 그 나라 왕가에 들어가 왕도의 교육을 받은 후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밝혀져 황야로 도망갈 때 까지가 그의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 년입니다.

계속해서 쓸쓸하게 황야에서 보내는 40 년이 그의 인생의 제 2 막이라 하면 제 3 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의 인생의 클라이맥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장관의 최후를 장식하는 40 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여행 종착지인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조금 의아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60 명이 고향을 떠나 현대 일본의 여기 저기를 고작 2~3 개월 여행한 것 뿐인데도 여정 그 자체만으로도 한 작품으로서 완결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 인간의 일생에 주어진 능력이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행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도 있을 수 없겠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한사람 한사람에게 그다지 많은 사명을 맡기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에서 모세의 생애는 비밀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애굽에서의 탈출과 여행의 마지막 장까지였고 그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주시키기 위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사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최후의 여정까지인 40 년을 완수한 것으로 충분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도 아마 충분하다고 하셨겠지요.

한 시대 한 지역에서 태어나 시기와 토지가 어우러져 펼쳐지는 무대에 서있는 우리들은 낭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몇 몇의 사명에 이끌리어 각자의 여정을 완수하는 것이겠지요. 아마 모세의 인생은 거기까지로 충분했던 것이 틀림 없을 것이라고,,,

마치 제 자신을 이해시키려는 듯이 힘주어 고덕이는 것은 왜일까요?.

어떻든 이 여행은 이 자체로 완결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부디 하루라도 빨리 완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주님이여 과연 이 여행을 마쳤을 때 우리들에게 도시와 교회를 부흥시킬 힘이 남아있을는지요.

한국의 6.25 전쟁 발발시 동란중에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100 명의 성도와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피난여행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30 대 전반이었을 그 선생님은 위험한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할 결단을 내리고 이별과 만남을 되풀이하며 시작된 여행은 너무나 가혹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과 육친과의 생이별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겨우 도착한 서울 땅에서는 약 100 명의 생활 터전을 확보해야 했고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탄생한 교회는 장래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고 그 가혹한 시련의 경험이 나중에는 큰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과거에 얼마만큼의 시련을 견디고 극복해 왔는지가 장래 인생의 저력이 되며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나약해져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앞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지금은 달리는 신칸센 안이지만 여행은 시작과 함께 반드시 끝이 기다리고 있지요. 현재는 그 도중으로 지나가는 중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레일 위에 있고 이 레일의 끝은 종착역입니다. 속도가 느려서 전진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앞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당분간은 내릴 수 없는 열차 안에서 더딘 안타까움을 달래며 기다리기로 하지요. 언젠가 손자나 증손자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이런 경험했단다”라고 옛말하는 날이 오겠지요. “아 누군가 이런 대사로 시작되는 영화를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뒷 날 영화의 소재로써 부끄럽지 않은 캐스트가 되기 위해 과감하게 이를 악물고 임무를 완수할 지도 모르니까요.

한 번 품 좀 잡아 보는 것도 어쩌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

사무엘 상 제 16 장

1 절

가케가와 신칸센 차창에서 6 월 7 일(화)

사토 아키라((佐藤 彰)

